

# 조선내화 24년째 임단협 무교섭 타결 '상생노사'

### 내달 지주사 신설·재상장 예정 전문성 강화·100년기업 다짐

조선내화 노사(대표이사 이상암·노조 위원장 이현세)는 지난 27일 2023년 임금교섭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내화는 지난 2000년부터 24년째 무교섭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조선내화는 오는 7월 지주사(CR홀딩스) 신설 및 재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지주사 체제를 갖춰 사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성장 동력을 위해 100년 기업을 향해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타결을 이끌어 낸 조선내화의 임단협 결과가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이라는 회사방침에 대해 임직원들이 올해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무교섭과 2024년 임금 동결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회사를 믿고 미래 경영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상암 대표는 조인식에서 "지난 76년



조선내화 노사(대표이사 이상암·노조위원장 이현세)는 지난 27일 2023년 임금교섭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조선내화 제공

간 조선내화는 IMF 및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위기 때마다 노사가 합심해 극복할 수 있었다"며 "회사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노동조합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세 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도 세계경기 둔화로 철강수요 부진이 우려되

는 가운데 지주사 체제 재편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노동조합은 회사 정책에 적극 동참,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조선내화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새기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사평화탑을 건립한 바 있다. 매년 무교섭 타결 때마다 노사가

한단 한단 층을 새겨 넣어 조선내화인으로서 열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내화는 태극기, 사기, 무재해기와 노동조합기를 함께 게양하고 있을 만큼 상생의 노사문화가 빛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 노사상생 모범업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 시립박물관 건축 가속도



여수시가 추진하는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과 '시립박물관 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선소테마정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시립박물관 건축사업 보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가 관광문화도시 도약을 목표로 이틀간 가진 선소테마정원·시립박물관 용역 최종보고회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 추진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은 선소유적 일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859.70㎡ 규모의 선소테마명상전시관이 건립된다.

영상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다목적실 등으로 이뤄졌으며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사업비 293억원으로 용전동 이순신 공원 내 지상 1층 연면적 5610㎡ 규모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수장고, 세미나실 등이 구성돼 설립된다.

오는 7월 중에 착공돼,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 이중근 부영회장, 순천 고향마을 주민들에 최고 1억원 현금 지급

### 서면 운평리 6개마을 280세대 동산초 동창생들에게도 제공 주민들 "자발적 공적비 건립"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사비를 들여 고향인 순천 운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1억여원씩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순천 서면 이장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운평리 6개 마을 280세대 주민들에 세금 공제후 2600만원~최대 9020만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마을 토박이와 실거주 30년 이상 등 거주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했다.

이 회장은 운평리 죽동마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서면 동산초등학교



이중근 회장

(25회)와 순천중학교(15회)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상경해 고학으로 야간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에 부영초등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부문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온 이 회장이 고향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2세로 고령인 이 회장은 동산초 남자 동창생들에게도 1억원씩 전달한 데 이어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최근 동창 명부를 파악했다고 한다. 또 순천중학교 동창생들에게도 1억원씩 지급했으며 같은 기수로 순천고를 졸업한 8회 동창들에 5000만원씩 전달했다. 확인된 순천중·고 동창생들만 80여명에 이른다. 이 회장의 친척들은 2년 전에 이미 1억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받았다.

이달 초 9020만원을 받은 A마을 이장은 "지난해 말 부영측에서 마을에 실로 살고 있는 주민들 수를 파악했다"며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과 농촌의 힘든 여건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운평리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지 모를 정도로 들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의 사비 출연과 별도로 부영건설은 지난 22일부터 서면 자연 마을

2900여 세대에는 참치세트와 공구세트를 추가로 전달했다. 이외 서면 지역 전세대와 순천 부영아파트 입주자 5000여 세대에게도 참치 세트를 지급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운평리 사람들은 이 회장에 대한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이 받은 금액의 1%를 성금으로 냈다.

운평리 당천마을에 거주하는 장찬모(82) 공적비 건립추진위원장은 "도와준 일도 없는데 꿈꾸는 것 같은 선물을 주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극찬하고 있다"며 "회장님이 이번 일을 비약시키지 말고 공적비도 세우지 말라 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행복한 한글 교실' 운영

### 보성군, 마을회관 3개소

보성군은 오는 11월까지 마을회관 3개소에서 비문해 저학력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성군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한글 교실',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성인문해(디지털)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성면 수춘마을, 발교읍 옥전마을, 노동면 대여마을에서 각 주 3회씩 총 54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행복한 한글 교실'은 평생교육기관까지 나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신청을 받아 한글 강사가 경로당을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해 '행복한 한글 교실' 참석자들에게 가방, 컬러링북, 문구 세트 등 학습 물품을 후원하며 예술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친다.

김은지 기자



보성군이 오는 11월까지 마을회관 3곳에서 저학력 어르신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한글교실을 운영한다.

보성군 제공

## 광양시, 배알도 체류형관광 중심 중간 보고회

### 도선국사문화관광벨트 등

광양시는 지난 27일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조성 기본계획과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한자리에서 연이어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관계부서장, 지역 주민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배알도 미디어파사드 조성' 사업은 배알도에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미디어아트를 연출해 체류형 야간관광 거점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원에 '동주의 별빛정원'을 테마로 상상의 폭포, 별 숲, 시인의 얼굴 등 차별화된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해 섬진강 관광시대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구례군, 취·정수장 복구 완료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최선'

구례군은 지난 2020년 8월 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침수되었던 구례취수장 및 섬진강정수장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최종 준공검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전 폭우로 인해 구례취수장과 섬진강정수장이 침수되면서 산동면 일대를 제외한 구례군 전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먹고 씻을 물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은 수해복구 예산 확보 등 타개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침수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 추진된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53억원, 지방비 18억원 등 복구비 총 71억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 11월 공사를 착공해 20개월 만에 완료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준 시공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대비로 수해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민 수도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황전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진환 기자